광산구, 소상공인·중기 맞춤형 지원 '팔 걷었다'

매출 1억 이하 사장님 30만원 활력지원금 등 지자체 최초 차별화 정책 '눈길'
유동성 부족 중기에 100억원대 운용자금 지원 기보와 특례보증 업무협약도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 진단, 후 처방'이라는 맞춤형 경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광산구 사장님 활력지원금'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타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는 차별화된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출 1억원 이하 업체에 3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광산구 사장님 활력지원금' 사업을 진행중이다.

광산구는 정책시행에 앞서 지난 3월 20개 업종 자영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사항 등 매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자영업자 93%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장 운영자금과 임차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광산구는 이 같은 상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예산 37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1만2500여 소상공인업체에 '사장님 활력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또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8일 기술지원보증기금측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5억원을 출연한다는 금융지원업무협약도 맺었다.

낮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특례보증을 통해 쉽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운용자금 규모만 100억원대로, 광산구 관내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은 각각 5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관내 요식업 사업자를 위한 '배달 서비스 원스톱 지원사업'과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등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광산경제활력 캠페인'에 따른 경제 살리기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한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술지원보증기금, 광주은행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기술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산구는 앞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골목상권 블랙 프라이데이 지원사업'과 '사장님 3GO 희망캠페인', '광산구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역 자영업자 실태 조사를 통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경제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광주시, 취약계층 등 1만장 배포

광주시는 "전입세대와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등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스티커 1만장을 제작해 각 자치구에 배부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은 스티커에 주소를 직접 기재해 사용할 수 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상대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전입세대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익숙하게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장학회, 코로나 특별장학금
대학생 100명에 100만원씩 지급

(재)광산장학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농업인,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거주 학생으로, 공고일인 11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2년 이상 광산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장학금 대상자가 우선 선발된다. 장학금 신청 접수기간은 11일부터 26일까지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광산구홈페이지 '장학회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금 관련 안내는 장학회 사무국(960-7926)에서 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코로나로 장소 변경…개별 통보

광주시는 "13일 시행되는 제1회 광주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가 일부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험장소 변경은 정부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시험실 수용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장소를 변경 공고했다.

필기시험장은 21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됐으며, 지난 5월27일 공고된 시험장 중 14개 시험장에 배정된 응시자는 다른 시험장으로 배정되거나 같은 시험장 안에서 시험실만 변경 조치됐다.

변경된 시험장은 광주중, 수완하나중, 봉산중, 운리중, 주월중, 송원중, 신용중, 성덕중, 전남중, 상일중, 월계중, 서광중, 송광중, 고실중 등이다.

변경된 시험장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원서접수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험장이나 시험실이 변경된 응시자는 응시표를 다시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광주시는 응시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장을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이정식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수험생들은 시 홈페이지나 원서접수센터에서 다시 한 번 시험장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광주시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 출원인원은 총 9868명이며, 장소 변경에 따라 시험장이 다른 학교로 바뀐 응시자는 1344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을공동체 '자원순환해설사'
광주시 50명 수료…본격 활동

광주시는 최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원순환 실천에 앞장 선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50명의 해설사를 양성했다.〈사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교육은 ▲우리나라 자원순환의 흐름과 제도 ▲광주자원순환 실태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광주의 생활쓰레기 배출과 수거의 현실 ▲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순환과 녹색소비 ▲전국 자원순환 마을공동체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해설사들은 마을공동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마을별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광주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3일까지 건설기계사업의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에 대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279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이뤄진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설기계 위법행위인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록 ▲주택가나 공터 등에 건설기계 주차 ▲불법 정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한국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총 17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등록취소 3, 영업정지 4), 등록기준 보완 8건, 자진폐업 2건 등을 조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마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도

광주시는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와 건설 공사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시 안전관리자문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급경사지 44곳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대규모 건축 공사장 등 46개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 현장·절개지, 흙쌓기·지하굴착 공사 현장, 최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요 건설공사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재난관리평가 '우수'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매년 행안부가 재난책임기관인 중앙부처 28곳, 공공기관 54곳,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점검하는 심사다.

광산구는 재난안전분야 재정 투자계획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교육·안전문화운동과 보건재난 저감 활동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과 자율방재단 활성화, 재난 대응 실무반 편성 및 숙지도 실시와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강화,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관리에 내실을 기한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